천년고찰 개산 아름다움 시민과 나눈다

통도사 10월 30일까지 '영축문화축제' 개최

'천년의 문화 나누다' 주제로
문화행사 · 전시회 등 이어져
미디어 활용한 예술공연 기대
괘불전 · 가사친견전시도 마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개산 1378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사진은 영축문화축제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의 개산(開山)을 기념하고, 천년 역사의 가치를 시민에게 축제로 회향하는 영축문화축제가 시작됐다. 통도사는 '개산 1378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산문을 개방했다.

영축문화축제는 △문화행사 및 전시 △역사와 문화의 장 △나눔과 참여의 장으로 나눠 진행되며, 그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의 전통 가람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선사할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는 통도사 삼성반월교 일대에서 진행하는 드론쇼로, 10월 14일과 21일 오후 8시에 만나볼 수 있다. 드론쇼와 함께 무풍한송로에서 미디어 예술을 보여줄 미디어파사드도 10월 13일부터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문화행사 및 전시

영축문화축제는 경내를 장엄하는 국화만발로 시작을 알린다. 현재 통도사 경내 각 전각은 가을국화로 꽃 공양을 올리고 산사를 찾는 사람마다 가을 정취에 쉼을 얻고 있다. 9월 15일 시작된 국화장엄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스님들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나도 작가다' 는 10월 29일까지 감로당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상언 도자 나한전은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명월료에서 진행되며,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은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명월료에서 이어진다.

역사와 문화의 장

통도사의 개산을 기념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와 역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는 역사와 문화의 장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21일 오후 1시에는 괘불특별전(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탱)이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통도사는 개산을 맞아 의식용 초대형 괘불을 헌괘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부도헌에서는 역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며 차를 올리는 헌다례도 진행된다. 22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다. 전시 장소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2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나눔과 참여의 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통도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회 사생실기대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통도사 경내를 걸으며 자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통도사로 가을소풍을 떠나자' 를 10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및 문화공연도 열린다. 통도사는 10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어르신을 위한 점심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1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해 흥겨움을 선사한다. 전통 이운행렬 의식인 '영축삼보 이운' 은 10월 21일에 진행되며, 괘불헌공은 괘불대 앞에서 이운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통도사는 "개산대재는 시민들이 체험하는 화엄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불교의 보고인 통도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가치 알리는 전시 · 공연

부산 생명나눔, '라온(LA · 溫) 어울림 마당'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9월 16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면 영광도서 8층 리갤러리에서 '라온(LA · 溫) 어울림 마당' 을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서양화가 한동훈 작가의 작품 전시와 반야다례원 헌다, 영남불교 무용단 · 소리나라 색소폰 · 행복한 아코디언 동호회 ·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의 공연이 진행됐다.

생명나눔 부산본부장인 심산 스님은 "1년에 한 번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명나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생명나눔이라는 목표가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까지 부단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힘써달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행사에는 심산 스님(생명나눔 부산본부장),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눌은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법경 스님(광명사 주지), 대각 스님(옥천암 주지), 진각종 효인 정사, 일연 정사, 원상 정사, 이승표 부본부장, 배종권 · 최상곤 · 이경순 · 이원규 이사 등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추석맞이 쌀 전달

남구청에 백미 2000㎏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9월 18일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한가위 추석을 맞아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된 백미는 2000㎏(600만원 상당)이며, 남구청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지원 스님(부산남구불교연합회장), 대각 스님(옥천암 주지), 능후 스님(대연정사 주지),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오은택 남구청장,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경제가 힘들어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많이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설 명절엔 많은 후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명절 때마다 지역민을 위해 자비보시를 꾸준히 해주신 덕분에 남구가 희망나눔 캠페인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전해주신 쌀은 소외되는 분 없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성료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9월 19일 울산 문화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를 개최했다.〈사진〉 신도회는 매년 찬불가와 다채로운 음악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음성포교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사에는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합창단의 오프닝 무대로 시작해 백련사 향기소리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BBS울산불교합창단, 진각종 반야합창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한마음선원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정토사 어울림합창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곡을 선보였으며 초청가수 바다새 김혜정과, 신계행 가수 등의 무대도 이어졌다.

이영수 신도회장은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연관 스님 번역 유작, 관음사에 봉정

〈만선동귀집강의〉 발간
지현 스님 · 신도들 탈고
1000여 권 법보시 회향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 부처님전에 〈만선동귀집강의〉를 봉정하고 있다.

문경 봉암사 선덕을 지낸 연관 스님(1949~2022)이 유작으로 남긴 번역서 〈만선동귀집강의〉가 부처님전에 봉정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는 9월 18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만선동귀집강의〉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연관 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영명선사가 지은 〈만선동귀집〉을 대만의 선지식인 석성범(1920~1997)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담았다. 연관 스님은 생전 영명 선사의 책을 번역하기로 서원을 세웠고,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간청해 번역이 시작됐다. 1차 번역을 마무리하고 여러 번 퇴고를 거친 후 출간을 준비하던 가운데 연관 스님은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6월 15일 관음사에서 입적했다.

지현 스님은 번역서를 연관 스님 음력 생일에 맞춰 9월 18일 출판해 봉정했다. 이번 봉정법회를 위해 지현 스님은 1000여 권을 법보시로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 회향했다. 연관 스님이 탈고한 원고를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봉정법회는 지현 스님, 동주 스님, 도일 스님, 법인 스님을 비롯해 이미현 사유수출판사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영명 연수 선사의 만선동귀집으로 결집되고, 만선동귀집은 성범선사의 강의로 꽃이 피어 연관 선사의 번역으로 분명하게 이해되니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라며 "만선동귀집은 보리심을 일으켜 온갖 선행으로 반야지혜를 일으키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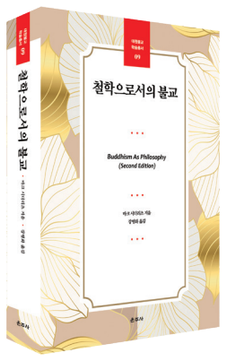
연관 스님은 〈만선동귀집강의〉를 번역하며 "이 강의본은 번역하면서 금덩이인 줄 알았더니 칠보를 얻은 기분이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에 새삼스러운 눈을 떴다"고 말한 바 있다.

연관 스님은 1969년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학에 조예가 깊어 출가 후 경학 연찬에 전념했다. 1974년에 탄허 스님이 대원암에서 화엄경 출판을 할 때 도왔으며 아울러 선원에서 정진해 선교겸수의 모범을 보였다.

2002년부터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해 칠상사, 상원사, 벽송사 등 여러 선원에서 36안거를 지내며 참선 정진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위원장,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를 지내고, 조계종 교육원이 낸 〈화엄경 현담〉 첫 한글 완역본 역경 책임자로 활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